

KRIVET Issue Brief

발행인 박영범 | 발행일 2012년 8월 15일 | 발행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

제9호 2012. 8. 15

교육 수준과 삶에 대한 만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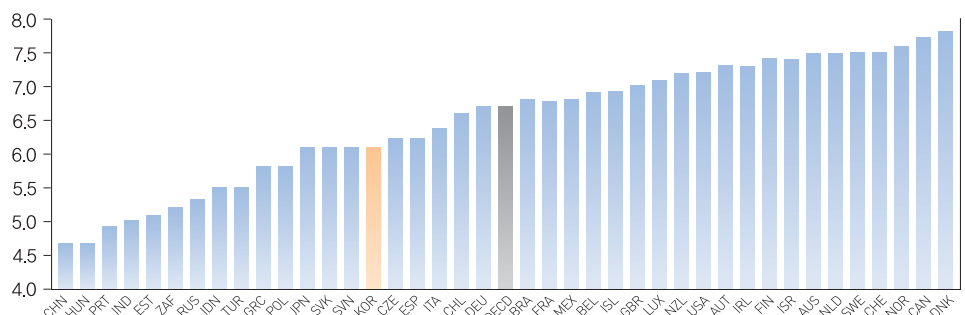
-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삶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높아짐. 중졸 이하 40.2%, 고졸 50.8%, 대졸 이상 60.5%
- 고졸-대졸 이상 학력 간 삶에 대한 만족 비율은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장년층(45-54세)에서는 17.5%p로 격차가 크게 벌어짐.
- 소득이 높아질수록 삶에 대한 만족 비율도 높아지나, 월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일수록 학력 간 격차는 더 커짐. 대졸은 71.1%인 반면 고졸은 57.6%, 중졸 이하는 50.9%에 그침.

01

1인당 GDP와 삶의 만족도

| 1인당 GDP가 높은 국가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지만, 높은 소득수준 그룹 내에서는 그 관계성이 낮음

- 갤럽 세계조사에 따르면 1인당 GDP가 높은 국가에서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.
 - 북유럽 국가 및 영어사용 국가 등 1인당 GDP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삶의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7점 이상
 - 반면, 중국, 인도, 남아프리카공화국, 러시아, 인도네시아와 OECD 국가 중에서는 헝가리, 포르투갈, 에스토니아, 터키 등이 5.5점 이하
- 그러나 GDP가 높다고 삶의 만족도가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며,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안정을 누릴 경우 삶의 만족은 비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받음.
 - 중남미 국가인 칠레, 브라질, 멕시코는 경제 수준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나, 일본과 우리나라는 높은 경제적 수준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는 낮음.
 - 이는 삶의 만족도에 교육, 문화, 복지 등 비경제적 요인들이 영향을 끼침을 시사함.



| 주 |
삶의 만족도는 Cantrill Ladder, 0-10 점 척도로 측정

| 출처 |
Gallup World Poll(201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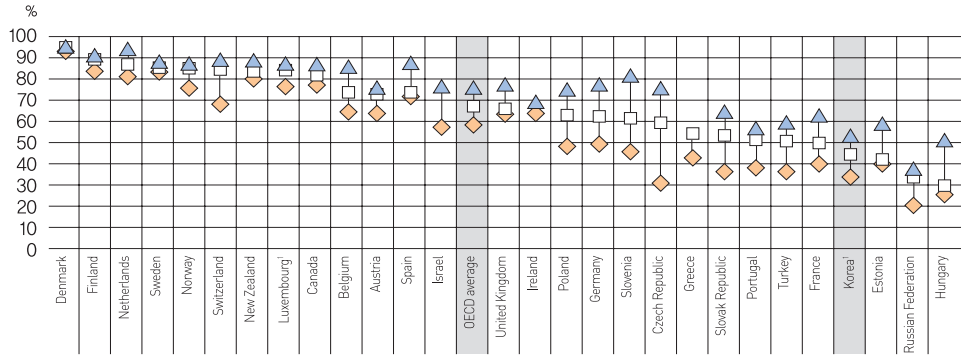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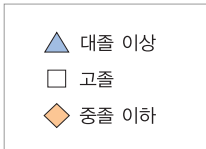
[그림 1] 삶의 만족도: Gallup World Poll 2010

02

OECD 국가에서의 교육 수준과 삶의 만족도

OECD 국가에서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커짐

- 『OECD Education at a Glance 2011』에 따르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삶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높음.
 - 고등교육을 이수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, 학력별 삶의 만족도 격차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.
 - 우리나라 성인의 삶의 만족도는 중졸 이하 34.0%, 고졸 44.0%, 대졸 이상 53.0%로 학력 수준에 비례하여 증가함. 그러나 OECD 평균인 중졸 이하 57.9%, 고졸 67.3%, 대졸 이상 75.5%에 비해 낮은 수준임.
 - 고졸과 대졸 간의 격차는 OECD 평균이 8.3%p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9.1%p로 차이가 크며, 덴마크(1.1%p), 핀란드(2.0%p), 스웨덴(1.1%p), 노르웨이(2.6%p) 등 북유럽 국가에서는 교육 수준별 삶의 만족도 격차가 거의 없음.



[그림 2] 교육 수준별 삶의 만족도

주 | 2008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며, 한국은 2009년 자료임.

출처 | OECD. Education at a Glance 2011, Chart A 11. 1(<http://www.oecd.org/edu/eag2011>)

03

우리나라 성인의 교육 수준과 삶의 만족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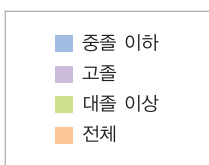
분석자료

- 한국교육개발원의 「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2011」 원자료
 - 동 조사에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참여 실태, 학습환경 및 학습활동, 사회 참여 및 인식에 관해 설문조사함.
 - 조사대상은 만 25세 이상 64세 이하의 개인으로 전국 3,254가구에서 5,000명이 조사에 참여
- 본 분석에서는 10점 척도로 측정된 생활에 대한 만족 수준에 7점 이상으로 응답한 경우를 '만족' 한 것으로 판단함.
 - 생활 만족도는 '매우 불만족스럽다' 0점, '매우 만족스럽다' 10점으로 측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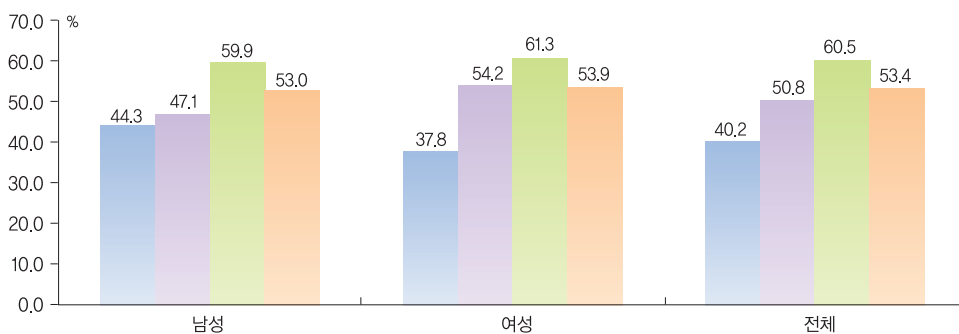
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삶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은 높아짐

- 중졸 이하 < 고졸 < 대졸 이상 순으로,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삶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높아짐.
 - 대졸 이상은 10명 중 6명이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지만, 중졸 이하는 4명만이 만족하는 수준임. 구체적으로 중졸 이하 40.2%, 고졸 50.8%, 대졸 이상 60.5%로 분석됨.

- 삶에 대한 만족 비율은 성별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나, 성별 내 학력 간 차이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큼.
 - 여성의 교육 수준별 삶의 만족도는 대졸 이상 61.3%, 중졸 이하 37.8%이며, 남성은 대졸 이상 59.9%, 중졸 이하 44.3%로 학력 간 삶의 만족도 격차는 여성이 남성보다 큼.
- 남성은 중-고졸 간의 차이보다 고졸-대졸 이상 간 차이가 크고, 여성은 반대로 중-고졸 간 차이가 고졸-대졸 이상 간 차이보다 큼.
 - 남성의 중-고졸 간 비율 차이는 2.8%p인데 반해 고졸-대졸 이상은 12.8%p임.
 - 여성의 중-고졸 간 비율 차이는 16.5%p인데 반해 고졸-대졸 이상은 7.1%p임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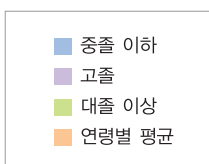
자료 | 한국교육개발원.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2011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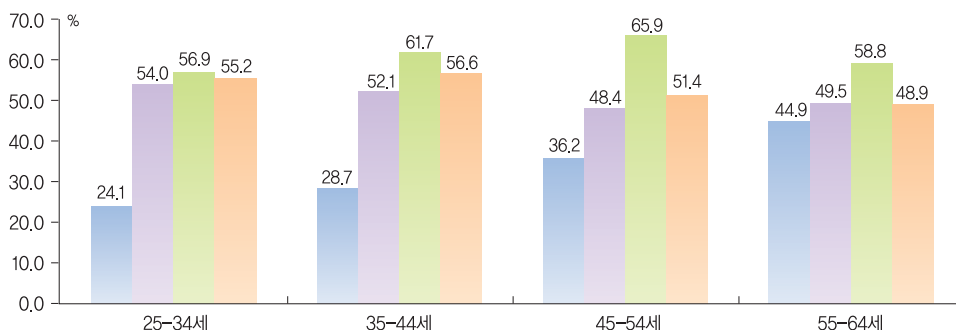
[그림 3] 우리나라 성인의 교육 수준 및 성별 삶의 만족도

삶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의 학력 간 차이는 장년층이 가장 큼

- 젊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 비율이 높고, 조기 은퇴가 시작되는 45세 이후부터 삶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은 낮아짐.
 - 연령별 삶의 만족도는 25-34세 55.2%, 35-44세 56.6%, 45-54세 51.4%, 55-64세 48.9%로 나타남.
-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는 고졸-대졸 이상 간 삶에 대한 만족 차이가 크지 않으나 장년층에서 가장 격차가 크게 벌어짐.
 - 고졸-대졸 이상 간 격차는 25-34세 2.9%p, 35-44세 9.6%p, 45-54세 17.5%p, 55-64세 9.3%p로 나타남.
- 중졸 이하 젊은 층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 비율이 가장 낮음.
 - 중졸 이하의 25-34세, 35-44세는 각각 삶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24.1%, 28.7%로 전체 평균(53.4%)에 크게 못 미침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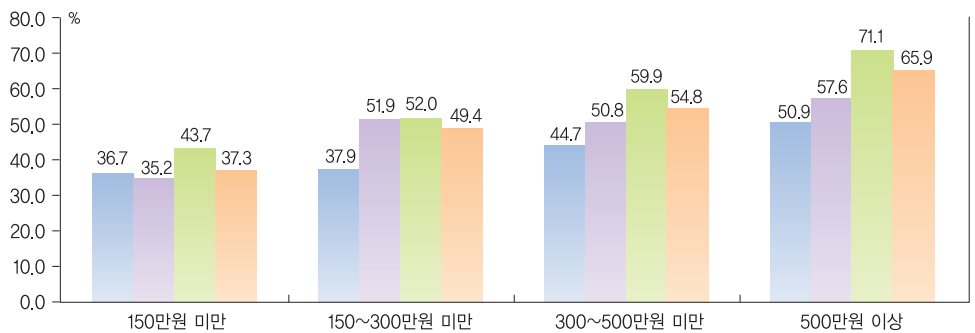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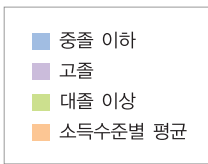
자료 | 한국교육개발원.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2011.



[그림 4] 우리나라 성인의 교육 수준 및 연령별 삶의 만족도

소득이 높아지면 삶에 대한 만족 비율은 높아지나 학력 간 격차는 더 확대됨

- 소득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.
 - 월평균 소득 150만원 이하에서는 37.3%, 150~300만원 이하 49.4%, 300~500만원 이하 54.8%, 500만원 이상에서는 65.9%로 소득이 높아질수록 삶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은 높아짐.
- 학력 간 삶의 만족도의 격차는 고소득군에서 가장 크게 나타남.
 - 월평균 소득이 150~300만원 구간에서는 고졸-대졸 이상 간 삶의 만족도에 큰 차이가 없음.
 - 그러나 5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삶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대졸 이상이 71.1%인 반면 고졸은 57.6%, 중졸 이하는 50.9%로 그 차이가 큼.



[그림 5] 우리나라 성인의 교육 및 소득 수준별 삶의 만족도

자료 | 한국교육개발원,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2011.

04 시사점

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의 역할이 중요함

- 학력이 높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, 월평균 소득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 중에서도 고학력자가 삶에 대한 만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. 이는 교육의 역할이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데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 데에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함. 그러나 대졸취업난이 현재와 같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이와 같은 학력과 삶의 만족도의 정(+)의 관계는 향후에는 약화될 가능성이 큼.
- 고졸-대졸이상 간 삶의 만족도 격차는 경력 피크기에 가장 크게 벌어지다가 은퇴 후 다시 줄어드는 것으로 보아, 고졸자들이 직장 내 임금이나 승진 등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학력주의 현실을 일부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음. 따라서 고졸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 학력이 아니라 능력이거나 직무에 의해 평가받는 제도 및 관행이 조속히 정착되어야 함. 특히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함.
- 중졸 이하 학력 수준에서는 삶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이 절반에도 못 미치며, 특히 2~30대에는 그 비율이 30%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학업 중단이 인생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됨. 따라서 청소년의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, 복귀를 지원하는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.

주 회 정 (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)